KMI 국제물류위클리
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
제773호
2025.12.19.
www.km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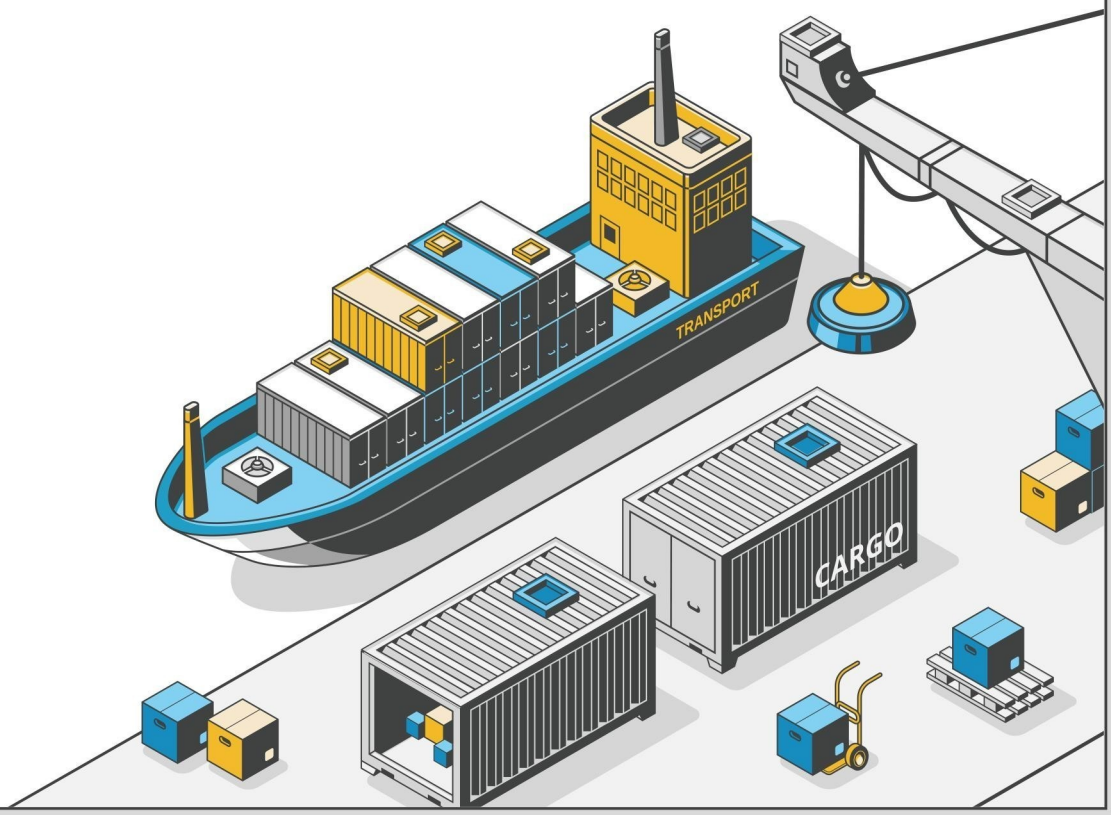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**발행처 :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**감수 :** 이언경 **전화번호 :** 051-797-4913 **E-mail :** kdong@kmi.re.kr

목 차

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- 인도, 미국관세에도 대미 수출 유지…FTA 임박 속 해상 물류 흐름 재편
- 싱가포르항 GDSC 개발 지원을 통한 친환경 연료 공급망 허브 기능 강화

미주 · 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- 美 무역·관세 리스크 지속…'26년 물동량 감소와 물류 수요 약세 전망

공지사항
-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
해양수산부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인도, 미국관세에도 대미 수출 유지… FTA 임박 속 해상 물류 흐름 재편

- **미국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對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(FTA)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**
  - 인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무역수지 적자는 245억 3,000만 달러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금·석유·석탄 등 원자재 수입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  - 동 기간 수출은 약 381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약 760억 달러에서 626억 6,000만 달러로 감소함
  -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11월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약 10% 증가한 69억 2,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, 전년 동기(57억 달러) 대비 21% 증가한 수준임

- **인도 정부, 미국과의 통상 협정 관련 긍정적 입장 표명**
  - 로이터에 따르면 라제시 아그라왈(Rajesh Agrawal) 인도 상무부장관은 "관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대미 수출을 유지하고 있으며,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있어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"고 밝힘
  -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며, 미국과의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함

- **미국 관세 환경 변화에 따른 인도 수출 구조 조정과 해상 물류 흐름 변화 관측**
  - 더로드스타(The Loadstar)는 미국 관세로 인해 인도 수출업체들이 무역 다변화를 모색하면서, 지역 컨테이너 선사들이 인도 항로에 선복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함
  - 이는 관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해운 시장의 조정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음

- **터키계 선사 아르카스 라인의 인도 항로 추가 서비스 검토**
  - 아르카스(Arkas)는 '25년 초 인도 시장 진출 이후의 무역 반응을 바탕으로, 인도에서 동아프리카 및 극동 항로를 연결하는 두 번째 서비스를 계획 중임
  - 더로드스타에 따르면 인도 내 대리점인 파레크 마린(Parekh Marine)은 "아르카스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"이라고 밝혔으며, 해당 선복 증편은 내년 초를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

- **인도-지중해 항로에서의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 제기**
  - 아르카스와 투르콘 라인(Turkon Line)은 홍해를 경유하는 인도-지중해 서비스(IMS, India-Med Service)에 현재 5척의 선박을 투입해 공동 운영 중임

- 해당 서비스는 '25년 2월 개시됐으며, 암바를리(Ambarli)-에비얍(Evyap)-알리아가(Aliaga)-메르신(Mersin)-아카바(Aqaba)-제다(Jeddah)-나바 셰바(Nhava Sheva)-문드라(Mundra)-제다(Jeddah)-아카바(Aqaba)-알렉산드리아(Alexandria)-암바를리(Ambarli)를 순환함
- 양사는 주간 정시성 확보를 위해 여섯 번째 선박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

인도발 농산물 및 냉동 화물 증가와 내륙 연계 물류 전략 확대

- 업계에 따르면 인도의 지중해향 수출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음
- 아르카스는 인도 국영 복합운송사업자 콘코르(CONCOR)와 협력해, 다드리 ICD에서 문드라 항만까지 이중 적재 블록 열차를 운영 중임
- 더로드스타는 동 철도 서비스가 시간에 민감한 냉동·냉장 화물 운송의 리드타임 단축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

물동량 이동에 따른 기존 대형 선사의 선복 조정과 인도 컨테이너 화물의 터키 환적 비중 확대

- 업계에 따르면 CMA CGM은 인도-지중해 무역에서 메덱스(Medex) 서비스의 일부 기항을 취소하며 선복을 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이는 무역 흐름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
- 또한 "인도발 컨테이너 물동량이 터키를 경유해 유럽, 아프리카, 러시아 등으로 운송되고 있다"고 언급했으며, "인도와 러시아 간 무역 확대에 따라 터키행 선복 수요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"이라고 덧붙임

미국 관세 환경 변화와 미·인도 간 FTA 논의 진전은 인도 수출과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시사

- 관세 수준 외에도 수요 구조, 품목 경쟁력, 시장 기대 등이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한 통상 정책 효과 분석이 요구됨
- 기업은 관세정책에 대비해 반영한 중장기 수출·물류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, 정부는 통상 협상에 따른 해상운송 네트워크 변화와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

참고 자료: https://theloadstar.com (검색일: 2025.12.17.)

권보배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b2kwon@kmi.re.kr

싱가포르항 GDSC 개발 지원을 통한 친환경 연료 공급망 허브 기능 강화

- **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은 ASEAN 지역 친환경 연료 공급망 허브로서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**
  - "IMO 2050" 장기 로드맵과 클라이드뱅크 선언을 계기로 해운산업의 탈탄소화가 촉진되고 있으며, IMO, EU 및 국가 단위의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음
  - 지난해 싱가포르항의 벙커링 규모 54.9백만 톤으로 전 세계 선박 연료유 공급의 약 16.7%를 차지하고 있음
  -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녹색회랑(Green Shipping Corridor) 구축 프로젝트가 글로벌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, 싱가포르항은 "MPA" 이니셔티브에 따라 GSC(Green Shipping Corridoe) 부분에 디지털을 접목한 GDSC(Green Digital Shipping Corridor) 인프라 개발 및 확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임

- **싱가포르 정부는 GDSC 개발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재정 부담,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정책을 수행 중**
  - 싱가포르항은 메탄올 벙커링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특히 안전·운영 리스크가 높은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R&D·실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
  - 또한, Upstream(정책·제도)→Midstream(타당성·시장기능)→Downstream(자본집행·금융지원) 단계를 통해 연료 공급망 확보, 인프라 투자를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구현하고 있음
  - 추가적으로, 친환경 연료 공급망 선점을 위해 기술표준 확립→공급 라이센스 발급→시장설계 →e-BDN을 통한 벙커링 관련 리스크 관리 단계로 상용화 촉진 프레임워크를 적용 중임

- **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은 GDSC 연계망 확장을 최우선 과제루 수립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싱가포르항의 친환경 공급망 연계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**
  - 싱가포르항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, 미국 롱비치항·로스엔젤레스항, 중국 텐진항·칭다오항, 일본 도쿄항을 포함한 6개소 항만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중이며 한국, 호주, 인도 또한 싱가포르항 간 GDSC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
  - 친환경 연료 특성, 공급망 운영 효율성에 따라 차별화된 파트너 항만을 모색하며 GDSC 기반의 네트워크 확장 로드맵을 설계를 병행하고 있음
  - 추가적으로, 연계 항만 간 표준·인증·운영에 대한 정합성 제고를 고려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

GDSC 연계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싱가포르항의 벙커링 허브화 전략 초기 단계

자료: https://globalmaritimeforum.org (검색일: 2025.12.17)

- **싱가포르항의 GDSC 연계망 확장에 따라 향후 ASEAN 지역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관련 시장 확대와 물류산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**
  - 메탄올·암모니아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물류 서비스 확대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  - 디지털 분야가 접목됨에 따라 e-BDN과 같은 물류·리스크 관리 솔루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  - 또한, 연계 GDSC 거점 항만들의 배후물류단지의 연료 공급망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관련 산업체들의 경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  - 하지만, GDSC 인프라 구축 단계와 운영 성숙도에 따라 물류거점 재편이 유발될 수 있기에 친환경 벙커링 시장의 변화 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

참고자료 : https://container-news.com, https://informedinfrastructure.com, www.seatrade-maritime.com, (검색일: 2025.12.1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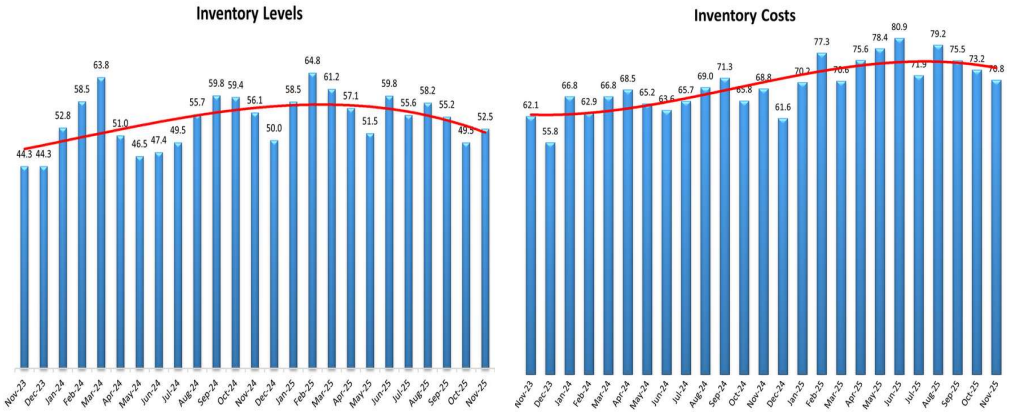
황제호 전문연구원
051-797-4685, hjh3904@kmi.re.kr

美 무역·관세 리스크 지속… '26년 물동량 감소와 물류 수요 약세 전망

- **내년도 美 '컨' 물동량은 관세 리스크 및 무역축소로 금년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주기업의 재고보유 감소로 해상운임 하락과 물동량 회복 지연 전망**
  - S&P Global Ratings는 美 무역 및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美 주요 항만의 '컨' 물동량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
  - 美 주요 항만운영사 또한 물동량의 본격적인 회복 시점을 '27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으며, 관세 정책이 화주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한편, 생산기지의 리쇼어링을 촉진함으로써 항만 물동량에 구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
  - 특히 美-中 교역은 내년 11월까지 유효한 양국 간 무역 합의로 인해 '26년 일정 부분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나,
  - 중국 및 기타 교역국에 대한 관세 수준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화주들은 신중한 재고 및 물동량 운용 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
  - 글로벌 포트 트래커(Global Port Tracker) 또한 관세 인상 효과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 수요 약화로 나타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美 동·서안 모두 해상운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

- **내년 美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하지만, 조기 선적 여파와 재고 보유비 상승, 소비·경기선행지표 둔화로 한동안 물류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**
  - 한편 실업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, 전문가들은 美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, 美 실질 GDP 성장률은 '24년 2.8%, '25년 2.0%에 이어 '26년 2.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
  - 다만 이러한 거시경제 전망과 달리, 실제 재고 수준은 빠르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, 올해 초부터 이어진 조기 선적(front-loading)의 영향으로 美 소매업체와 수입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재고 보충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
  - 물류관리자지수(LMI)에 따르면 재고 수준(Inventory level)은 11월 52.5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, '25년 초부터 재고보유(Inventory costs) 비용이 매월 증가하면서 기업은 재고를 최소 수준으로 보유하려고 함
  - 여기에 더해 고물가에 따른 소비 지출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,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제조업 신규 주문은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, 신규 주택 착공(Housing Starts) 또한 8월 기준 전년 대비 11.1% 감소하면서 물류 수요 전반에 하방 압력이 누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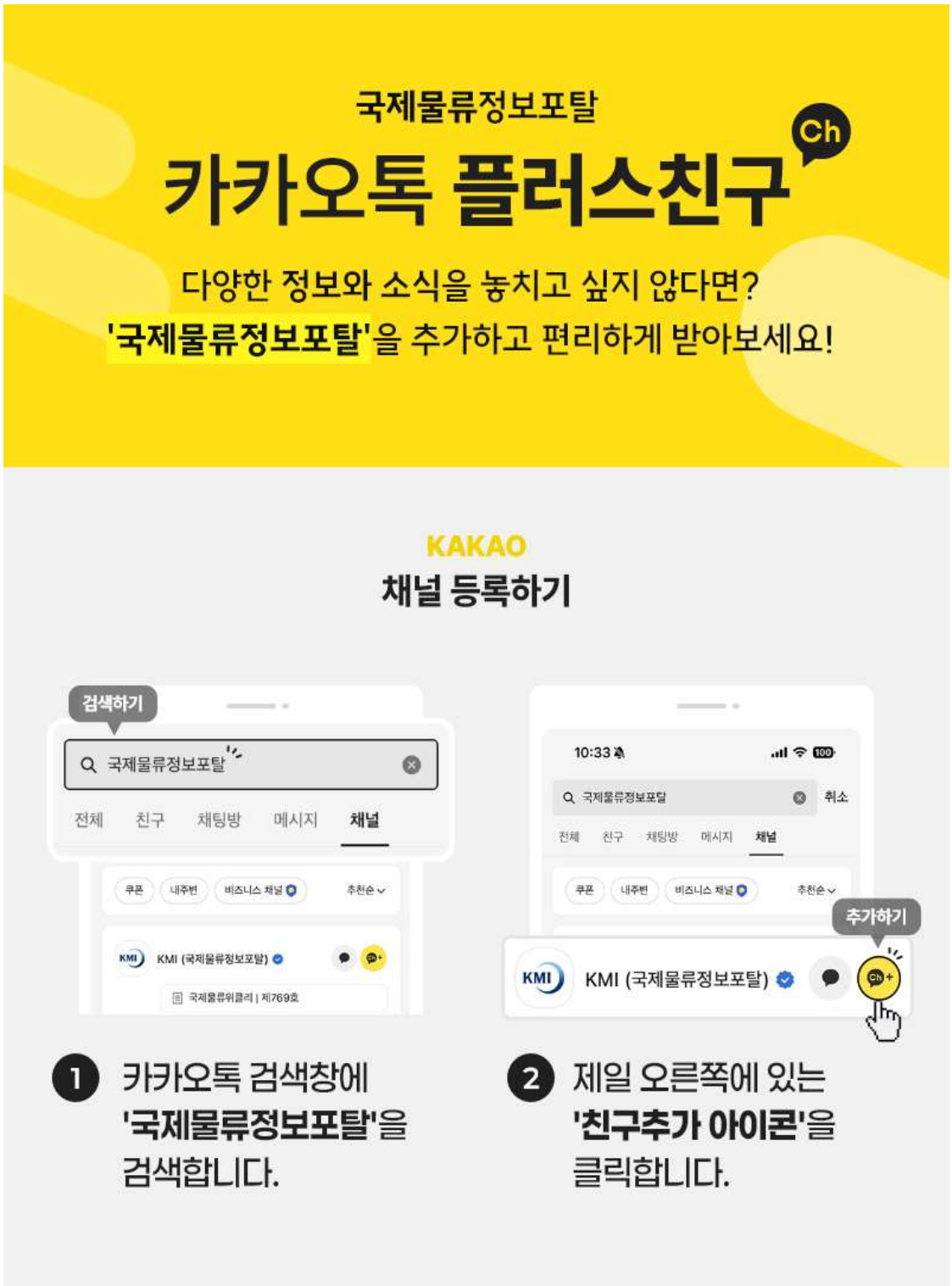
미국 시장 재고 수준(Inventory Levels)과 재고 비용(Inventory Costs) 추이(2024-2025)



자료: Logistics Manager's Index (검색일: 2025.12.16.)

- **내년 美 물류시장은 올해와 유사한 물동량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 물동량은 둔화되는 반면 수출은 다소 안정적인 비대칭적 구조가 나타날 전망**
  - '26년은 '25년 상반기와 유사한 약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, 관세 불확실성과 재고 축소, 물류수요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'저물량, 저운임, 공급과잉'의 물류시장 축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 - 美 소매연맹(National Retail Federation, NRF)는 '25년 전체 수입 물동량은 2,520만 TEU로 '24년 대비 1.4%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고, '26년 1~4월 물동량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
  - 반면 美 컨테이너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해, '25년 1~9월 수출 물동량은 전년 대비 2.3% 증가했으며, 농산물 수출도 1.2% 늘면서 美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이례적인 교역구조를 기록함

참고 자료: https://www.freightwaves.com (검색일: 2025.12.16.)

성현정 전문연구원
051-797-4648, hjsung@kmi.re.kr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